

만약에...

문법

이제 좀 나와주세요.

된소리 되기

모의고사에서 이렇게 건들고 안 나오면 어찌합니까!!

1. <보기>는 표준발음법 규정의 일부이다. 이 규정을 활용하여 해결할 수 있는 질문이 **아닌** 것은?

[표준 발음법][13년 6월 고2]

<보기>

제 23항 받침 ‘ㄱ(ㄱ, ㅋ, ㆁ, ㄷ), ㄸ(ㅈ, ㅊ, ㅌ, ㅎ, ㅓ, ㅕ), ㅃ(ㅍ, ㅍ, ㅍ, ㅍ)’ 뒤에 연결되는 ‘ㄱ, ㄸ, ㅃ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 예) 국밥[국꺾], 옷고름[온꺾름], 엽집[엽꺾]

제 24항 어간 받침 ‘ㄴ(ㄴ), ㄹ(ㄹ)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ㄸ, ㅃ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 예) 앉고[안꺾], 더듬지[더꺾지]

다만, 피동, 사동의 접미사 ‘-기-’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
 예) 안기다[안꺾다], 감기다[감꺾다]

- ① ‘덜개’는 [덜꺾개]인가요, [덜꺾개]인가요?
- ② ‘갈등’은 [갈꺾등]이 아니라 왜 [갈꺾등]인가요?
- ③ ‘낫설다’는 [낫꺾다]인가요, [낫꺾다]인가요?
- ④ ‘머금다’는 [머꺾다]가 아니라 [머꺾다]가 맞나요?
- ⑤ ‘남기다’는 [남꺾다]가 아니라 왜 [남꺾다]인가요?

2. 다음은 음운 변동에 대한 자료이다. 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
[음운 변동][14년 9월 고2]

○ 받침 ‘ㄱ, ㄸ, ㅃ’ 뒤의 ‘ㄱ, ㄸ, ㅃ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 예) 국밥[국꺾], 뺨다[뺨꺾] ㉠

○ 어간 받침 ‘ㄴ, ㄹ’ 뒤의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ㄸ, ㅃ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 예) 넘고[넙꺾] ㉡

○ 관형사형 ‘-ㄹ’ 뒤의 ‘ㄱ, ㄸ, ㅃ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 예) 할 수는[할꺾는], 만날 사람[만꺾사람] ㉢

- ① ㉠~㉢은 모두 특정한 음운 환경에서 예사소리가 된소리로 발음되는 현상이군.
- ② ‘뺨꺾’이 [뺨꺾]로 발음되는 것은 ㉠에 해당하는 것이겠군.
- ③ ‘껴안다[껴안꺾다]’를 ㉡의 예로 추가할 수 있겠군.
- ④ ㉢은 단어와 단어 사이에서 적용되는 규칙이군.
- ⑤ ‘기쁜 소식[기꺾소식]’으로 보아 ㉢과 달리 관형사형 ‘-ㄹ’ 뒤에서는 된소리되기가 일어나지 않는군.

3. 다음은 ‘안다’의 표준 발음에 관해 어느 학생이 수행한 탐구 과정이다. ㉠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? [3점]

[표준 발음법][13년 3월 고3]

의문 “아기를 안다[안:따].”와 “그 사람을 잘 안다[안:다].”에서 ‘안다’의 표준 발음이 다른 이유는 뭘까?

↓

탐구

(1) 음운 환경이 유사한 단어를 된소리 발음 여부에 따라 분류한 후 그 특성을 분석한다.

된소리로 발음되는 경우 (신발을) 신다[신:따]	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경우 (하늘을) 난다[난:다]
↓	↓
어간 어미 신- -다 -고 -어서	어간 어미 날- -다 -고 -아서

(2) 표준발음법 규정을 확인하여 분석 결과와 비교한다.

제24항 어간 받침 ‘ㄴ(ㄴ), ㄹ(ㄹ)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ㄸ, ㅃ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결론 “그 사람을 잘 안다.”의 ‘안다’가 표준발음법의 된소리 되기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은 것은 (㉠)

- ① ‘안다’에 대한 개인의 발음 습관 차이 때문이다.
- ② ‘안’이 길게 발음되어 ‘다’에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.
- ③ ‘안다’의 의미를 명확히 전달하려는 표현 의도 때문이다.
- ④ ‘안다’에서 ‘다’의 ‘ㄸ’이 모음 사이에 있지 않기 때문이다.
- ⑤ ‘안다’에서 ‘안’의 ‘ㄴ’이 어간 받침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.

4. <보기>를 바탕으로 표준 발음법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[표준 발음법][15년 3월 고2]

<보기>

<표준 발음법 규정>

제 23항 받침 ‘ㄱ(ㄱ, ㅋ, ㆁ, ㄷ, ㄷ, ㄷ, ㄷ, ㄷ), ㄴ(ㄴ, ㄴ, ㄴ, ㄴ, ㄴ), ㄹ(ㄹ, ㄹ, ㄹ, ㄹ, ㄹ)’ 뒤에 연결되는 ‘ㄱ, ㄴ, ㄷ, ㄹ, ㅅ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제 24항 어간 받침 ‘ㄴ(ㄴ), ㄹ(ㄹ)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ㄴ, ㄷ, ㄹ, ㅅ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 다만, 피동, 사동 접미사 ‘-기-’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

제 25항 어간 받침 ‘ㄹ, ㄹ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ㄴ, ㄷ, ㄹ, ㅅ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- ① ‘따뜻한 국밥’에서 ‘국밥’은 제23항을 적용하여 [국꺾]으로 발음해야겠다.
- ② ‘우리 집 닭장’에서 ‘닭장’은 제23항을 적용하여 [닥짱]으로 발음해야겠다.
- ③ ‘의자에 앉도록’에서 ‘앉도록’은 제24항을 적용하여 [안또록]으로 발음해야겠다.
- ④ ‘아이에게 신발을 신기다’에서 ‘신기다’는 제24항을 적용하여 [신기다]로 발음해야겠다.
- ⑤ ‘여덟과 아홉’에서 ‘여덟과’는 제25항을 적용하여 [여덜과]로 발음해야겠다.

5. <보기>에 따라 표준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? [3점]

[표준 발음법][15년 6월 고3]

<보기>

<표준 발음법의 ‘된소리 되기’ 중 일부>

㉠ 어간 받침 ‘ㄴ, ㄴ, ㄹ, ㄹ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ㄴ, ㄷ, ㄹ, ㅅ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㉡ 어간 받침 ‘ㄹ, ㄹ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ㄴ, ㄷ, ㄹ, ㅅ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

㉢ 관형사형 ‘-(으)ㄹ’ 뒤에 연결되는 ‘ㄱ, ㄴ, ㄷ, ㄹ, ㅅ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 ‘-(으)ㄹ’로 시작되는 어미의 경우도 이에 준한다.

- ① ‘(가슴에) 품을 적에’와 ‘(머느리로) 삼고’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㉠에 따른 것이다.
- ② ‘(방이) 넓거든’과 ‘(두께가) 얇을지라도’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㉡에 따른 것이다.
- ③ ‘(신을) 신겠네요’와 ‘(땅을) 밟지도’에서의 된소리되기는 모두 ㉢에 따른 것이다.
- ④ ‘(남들이) 비웃을지언정’과 ‘(먼지를) 훑던’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㉠, ㉡에 따른 것이다.
- ⑤ ‘(물건을) 없지만’과 ‘(자리에) 앉을수록’에서의 된소리되기는 각각 ㉠, ㉢에 따른 것이다.

ㅎ 발음

문제 만들 게 정말 많은데 뭐 하십니까!

6. <보기 1>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를 <보기 2>에서 모두 고른 것은?

[음운 변동][13년 7월 고3]

<보기 1>

두 음운이 결합할 때 어느 한 음운이 없어지는 현상을 음운의 탈락이라 한다. 끝소리 ‘ㅎ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여 탈락하는 경우나 음절의 끝에 두 개의 자음이 올 때 이 중에서 한 자음이 탈락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.

<보기 2>

내일은 소풍 가는 날, 비 오지 ㉠않기를 바라며 잠자리에 들었다. 잔디밭을 ㉡밟고 친구들과 ㉢같이 즐겁게 놀며 ㉣멋진 경치를 볼 생각에 기분이 ㉤좋아서 잠도 오지 않았다.

- ① ㉠, ㉡ ② ㉠, ㉢ ③ ㉡, ㉣
- ④ ㉢, ㉤ ⑤ ㉣, ㉤

7. <보기>의 음운 현상과 가장 관계 깊은 것은?

[음운 변동][14년 3월 고3]

<보기>

‘ㅎ’이 끝소리인 어간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나 접미사와 결합하면 ‘ㅎ’이 탈락한다. ‘낱으세요’를 [나으세요]로 발음하거나 ‘쌓이다’를 [싸이다]로 발음하는 것도 이와 관련된다.

- ① ‘하얗다’를 [하야타]라고 발음한다.
- ② ‘좁히다’를 [조피다]라고 발음한다.
- ③ ‘놓는다’를 [논는다]라고 발음한다.
- ④ ‘그렁췌’를 [그러췌]라고 발음한다.
- ⑤ ‘좋아요’를 [조야요]라고 발음한다.

주관식으로 생각하고 함 읽어봐!

제12항 받침 ‘ㅎ’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.

1. ‘ㅎ(ㄸ, ㅌ)’ 뒤에 ‘ㄱ, ㄷ, ㅌ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뒤 음절 첫 소리와 합쳐서 [ㅋ, ㅌ, ㄸ]으로 발음한다.

[붙임 1] 받침 ‘ㄱ(ㄷ), ㄷ, ㅌ(ㄸ), ㅌ(ㄸ)’이 뒤 음절 첫소리 ‘ㅎ’과 결합되는 경우에도, 역시 두 음을 합쳐서 [ㅋ, ㅌ, ㅌ, ㄸ]으로 발음한다.

[붙임 2] 규정에 따라 ‘ㄷ’으로 발음되는 ‘ㅌ, ㅌ, ㅌ, ㅌ’의 경우에도 이에 준한다.

2. ‘ㅎ(ㄸ, ㅌ)’ 뒤에 ‘ㅌ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‘ㅌ’을 [ㅌ]으로 발음한다.

3. ‘ㅎ’ 뒤에 ‘ㄴ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[ㄴ]으로 발음한다.

[붙임] ‘ㄸ, ㅌ’ 뒤에 ‘ㄴ’이 결합되는 경우에는, ‘ㅎ’을 발음하지 않는다.

4. ‘ㅎ(ㄸ, ㅌ)’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, ‘ㅎ’을 발음하지 않는다.

※ ‘ㅎ’ 발음은 교체, 축약, 탈락 다양한 양상으로 드러난다. 따라서 한번 정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.

농고[노코]	종던[조 : 던]	
않던[안턴]	달지[달치]	
각하[가카]	먹히다[머키다]	
만형[마텅]	넓히다[널피다]	
웃 한 벌[오탄벌]	낮 한때[나탄때]	
달소[다쏘]	많소[만 : 쏘]	싫소[실쏘]
놓는[논는]	쌓네[싼네]	
얹네[안네]	똥네[똥네 → 똥레]	똥는[똥는 → 똥른]
낱은[나은]	놓아[노아]	많아[마 : 나]

ㄴ 발음 문제

8. <보기1>의 ㉠ ~ ㉣에 해당하는 예를 <보기2>에서 찾아 바르게 연결한 것은?

[표준 발음법][10년 6월 고2]

<보기 1>

[표준 발음법]

제 5항 ‘ㅌ, ㅍ, ㅋ, ㆁ, ㄷ, ㅌ, ㅍ, ㆁ, ㄷ, ㅌ, ㅍ, ㆁ’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.

다만 1.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‘저, 쯤, 처’는 [저, 쯤, 처]로 발음한다.

다만 2. ‘예, 례’ 이외의 ‘ㄷ’는 [ㄷ]로도 발음한다.

다만 3. ㉠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‘ㄴ’은 [ㄴ]으로 발음한다.

다만 4. ㉡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‘ㄴ’은 [ㄴ]으로, ㉢ 조사 ‘의’는 [ㄷ]으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

<보기 2>

몽테스키외, 루소 등이 주창한 자유사상은 미국 독립 혁명에 큰 영향을 주었다. 1776년 7월 4일에 채택된 미국의 독립선언문은 개인이 ㉠ 희망하는 대로 ㉡ 의사를 결정할 수 있는 권리를 역설하였고, 모든 권력은 국민의 ㉢ 동의에서 나와야 하며, 정부는 ㉣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우선적으로 도모해야 한다고 선언하였다.

- | | | | |
|---|---|---|---|
| | ㉠ | ㉡ | ㉢ |
| ① | a | b | c |
| ② | a | c | d |
| ③ | b | d | a |
| ④ | c | b | d |
| ⑤ | d | c | b |

9. <보기>를 고려하여 모음의 발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[표준 발음법][14년 6월 고3]

<보기>

모음의 표준 발음

- 국어의 단모음은 ‘ㅏ, ㅑ, ㅓ, ㅕ, ㅗ, ㅛ, ㅜ, ㅠ, ㅡ, ㅣ’의 10개를 원칙으로 한다. 다만 ‘ㅓ, ㅕ’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는데, 특히 ‘ㅓ’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[ㅕ]와 같아진다.
- ‘예, 레’ 이외의 ‘ㅕ’는 [ㅕ]로 발음할 수 있다.
-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‘ㅓ’는 항상 [ㅣ]로 발음되되,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ㅣ]로, 조사 ‘의’는 [ㅕ]로 발음할 수 있다.

- ① ‘개’와 ‘게’를 동일하게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.
- ② ‘금괴’를 [금궤]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③ ‘지혜’를 [지해]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④ ‘비취다’와 ‘비치다’를 모두 [비치다]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.
- ⑤ ‘충의의 뜻’에서 ‘충의의’를 [충이에]로 발음하는 것은 표준 발음에 해당한다.

10. <보기 1>을 참고할 때, <보기 2>의 ㉠~㉥ 중, 표준 발음에 해당하지 **않는** 것은?

[표준 발음법][15년 10월 고3]

<보기1>

표준 발음법

제5항 ‘ㅏ ㅑ ㅓ ㅕ ㅗ ㅛ ㅜ ㅠ ㅡ ㅣ’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.

다만 1.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‘저, 쩌, 처’는 [저, 쨌, 처]로 발음한다.

다만 2. ‘예, 레’ 이외의 ‘ㅕ’는 [ㅕ]로도 발음한다.

다만 3.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‘ㅓ’는 [ㅣ]로 발음한다.

다만 4.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ㅣ]로, 조사 ‘의’는 [ㅕ]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

<보기2>

- 긍정적인 마음을 ㉠ **가져야[가져야]** 한다.
- ㉡ **협의[허비]**를 거쳐서 결정한 사안이다.
- 젊은이들에게 ㉢ **희망[희망]**과 용기를 불어넣다.
- 문화 유적에는 조상들의 ㉣ **지혜[지혜]**가 담겨 있다.
- ㉤ **우리의[우리애]** 힘을 합치면 못할 일이 뭐가 있겠어요?

- ① ㉠ ② ㉡ ③ ㉢
- ④ ㉣ ⑤ ㉤

구개음화

제대로 한번 짚고 갑시다!

11. <보기>는 ‘구개음화’에 대한 탐구과제를 수행한 내용이다.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
[음운 변동][11년 11월 고2]

<보기>

탐구과제 : 아래 자료를 이용하여 현대 국어에서 일어나는 구개음화 현상을 검토하시오.

[기본 자료]

굳이[구지], 같이[가치], 붙이다[부치다]
→ ‘ㄷ, ㅌ’은 ‘ㅣ’모음 앞에서 ‘ㅌ, ㅊ’으로 발음된다.

[심화 자료]

- ㉠ 붙여[부처], 단혀[다쳐]
- ㉡ 마디[節][마디], 티[티]
- ㉢ 미닫이[미다지], 날날이[난나치]
- ㉣ 훌이불[훈니불], 발이랑[반니랑]
- ㉤ 묻히다[무티다 → 무치다], 갇히다[가티다 → 가치다]

[심화 자료를 통한 검토 내용]

- ㉠ : 구개음화는 모음 ‘ㅣ’뿐만 아니라 ‘ㅓ’ 앞에서도 일어난다.
- ㉡ : 구개음화는 한 형태소 안에서는 일어나지 않는다.
- ㉢ : 구개음화는 두 번째 음절 이후에서도 일어난다.
- ㉣ : 구개음화는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에도 일어난다.
- ㉤ : 구개음화는 두 자음이 하나로 축약된 다음에도 일어난다.

한글 맞춤법

아이들이 실수하는 거 보기 괴롭습니다!

12. <보기>는 준말과 관련한 한글 맞춤법의 일부와 그 예시이다.
㉠~㉣ 에 들어갈 알맞은 말은?

[한글 맞춤법][13년 9월 고3]

<보기>

- ‘ㅏ, ㅑ, ㅓ, ㅕ, ㅡ’로 끝난 어간에 ‘-이-’가 와서 각각 ‘ㅐ, ㅑ, ㅓ, ㅕ, ㅗ’로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	본말	준말
기본형	파이다	㉠
용례	깊게 파인 구덩이	깊게 ㉡ 구덩이

- ‘ㅐ, ㅑ’ 뒤에 ‘-어, -었-’이 어울려 줄 적에는 준 대로 적는다.

	본말	준말
용례	구덩이가 깊게 ㉢	구덩이가 깊게 폼다

- | | | |
|-------|----|-----|
| ㉠ | ㉡ | ㉢ |
| ① 패다 | 팬 | 패었다 |
| ② 패다 | 팬 | 패였다 |
| ③ 패다 | 페인 | 패였다 |
| ④ 패이다 | 팬 | 패었다 |
| ⑤ 패이다 | 페인 | 패었다 |

13. <자료>의 밑줄 친 발음 표시 부분을 맞춤법에 맞게 표기할 때 적용되는 원칙을 <보기>에서 찾아 바르게 짝지은 것은?

[한글 맞춤법][15년 9월 고3]

<자료>

- ㉠ 이것은 유명한 책이 **[아니요]**.
- ㉡ 영화 구경 **[가지요]**.
- ㉢ 이것은 **[설탕이요]**, 저것은 소금이다.

<보기>

- 용언의 어간과 어미는 구별하여 적는다.
-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‘-오’는 ‘요’로 소리 나는 경우가 있더라도 그 원형을 밝혀 ‘오’로 적는다.....㉠
- 이리로 오시오. (○) 이리로 오시오. (×)
- 연결형에서 사용되는 ‘이요’는 ‘이요’로 적는다..... ㉡
- 이것은 책이요, 저것은 붓이다. (○)
- 이것은 책이요, 저것은 붓이다. (×)
- 어미 뒤에 덧붙는 조사 ‘요’는 ‘요’로 적는다.....㉢
- 읽어 읽어요 먹을게 먹을게요

- | | | |
|-------|-------|-------|
| ① ㉠-a | ② ㉠-b | ③ ㉡-b |
| ④ ㉢-a | ⑤ ㉢-c | |

14. <보기>의 선생님의 설명을 바탕으로 할 때, ㉠에 들어갈 말로 적절하지 **않은** 것은?

[한글 맞춤법][15년 6월 고3]

<보기>

학 생 : ‘되어요, 돼요, 되요’ 중에서 어느 게 맞는지 궁금해요.
선생님 : “어간 모음 ‘되’ 뒤에 ‘-어’가 붙어서 ‘내’로 줄어드는 것은 ‘내’로 적는다.”라는 맞춤법 규정에 따르면 ‘되어요’는 어간 ‘되-’에 ‘-어요’가 결합된 것이므로 ‘돼요’로 줄어들 수 있어. 그러니까 ‘되어요, 돼요’는 맞는 말이지만 ‘되요’는 틀린 말이지. ‘(바람을) 쐬다, (턱을) 괴다, (나사를) 죄다, (어른을) 뵈다, (명절을) 쇠다’ 등도 이 규정에 따라 적으면 돼.
학 생 : 아, 그러면 ㉠

- ① ‘쐬어라’는 ‘쐬-’와 ‘-어라’가 결합된 것이므로 ‘쐬라’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.
- ② ‘괴-’와 ‘-느냐’가 결합될 때는 ‘어’가 들어갈 수 없으므로 ‘괘느냐’는 틀린 말이겠네요.
- ③ ‘쐬도’는 ‘쐬-’와 ‘-어도’가 결합된 말이 줄어든 것이겠네요.
- ④ ‘뵈-’가 ‘-어서’와 결합되면 ‘뵈서’로 줄어들 수 있겠네요.
- ⑤ ‘쇠-’와 ‘-더라도’가 결합될 때는 ‘쐬더라도’로 적으면 틀린 것이겠네요.

문장의 짜임

15. <보기>의 ㉠~㉥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[3점]
[문장의 짜임][14년 수능]

<보기>

명사절은 명사와 마찬가지로 문장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인다. 다음의 밑줄 친 명사절이 어떤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지 알아보자.

㉠ **색깔이 희기**가 눈과 같다.
 ㉡ 농부들은 **비가 오기**를 기다린다.
 ㉢ 부모는 언제나 **자식이 행복하기** 바란다.
 ㉣ 제비는 **겨울이 오기** 전에 남쪽으로 떠났다.
 ㉤ 지금은 **우리가 학교에 가기**에 아직 이르다.

- ① ㉠ :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주어로 쓰였다.
- ② ㉡ :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목적어로 쓰였다.
- ③ ㉢ :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목적어로 쓰였다.
- ④ ㉣ :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지 않고 부사어로 쓰였다.
- ⑤ ㉤ : 명사절이 조사와 결합하여 부사어로 쓰였다.

16. <보기>를 통해 관형어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관형어는 체언 앞에서 해당 체언을 수식하는 문장 성분으로, 다음 밑줄 친 말은 모두 관형어에 해당한다.

ㄱ. 어머니는 입학 선물로 **새** 구두를 한 켤레 주셨다. / *어머니는 입학 선물로 **새** 한 켤레 주셨다.
 ㄴ. **느낀** 대로 말해라. / *대로 말해라.
 ㄷ. 우리는 **지나가는** 사람을 붙잡고 길을 물어보았다.
 ㄹ. **순희의** 얼굴이 기억난다. / **순희** 얼굴이 기억난다.
 ㅁ. 우리는 **그가 결석한**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.

*: 비문법적인 표현.

- ① ㄱ으로 보아, 관형어는 그것이 수식하는 체언 없이 단독으로 사용될 수 없군.
- ② ㄴ으로 보아, 관형어가 의존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에는 그 관형어를 생략할 수 없군.
- ③ ㄷ으로 보아, 동사의 활용형이 관형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군.
- ④ ㄹ로 보아, 관형격 조사가 생략될 경우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되는군.
- ⑤ ㅁ으로 보아, 절 전체가 관형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군.

17. <보기>의 ㄱ~ㅁ을 통해 문장 구조를 탐구한 결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ㄱ. 나는 그가 우리에게 돌아오기를 바랐다.
 ㄴ. 사람은 사회의 일원으로 존재한다.
 ㄷ. 비가 오지 않아 모를 내지 못했다.
 ㄹ. 그는 약하지만 그녀는 강하다.
 ㅁ. 코끼리는 코가 길다.

- ① ㄱ :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하는 절을 안고 있다.
- ② ㄴ :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 있다.
- ③ ㄷ : 앞 절이 뒤 절에 종속적인 의미 관계를 이루고 있다.
- ④ ㄹ :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대조의 의미가 사라진다.
- ⑤ ㅁ :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절이 서술어 역할을 하고 있다.

18. <보기>의 설명을 참고할 때, 밑줄 친 관형절의 종류가 다른 하나는?

<보기>

관계 관형절은 관계 관형절과 동격 관형절로 나눌 수 있다. 관계 관형절은 안긴문장 속의 어떤 문장 성분이 그 절의 수식을 받는 안은문장 속의 체언과 동일하기 때문에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이 생략된다. 그러나 동격 관형절은 안긴문장과 그 절의 수식을 받는 체언이 의미상 동격 관계에 있는 것이므로 안긴문장의 문장 성분이 생략될 수 없다. 다음 예문을 보자.

a. ‘그녀는 음악을 좋아한다.’ + ‘나는 그녀를 사랑한다.’
 → 나는 **음악을 좋아하는** 그녀를 사랑한다.
 b. ‘그가 범인이다.’ + ‘나는 확신이 없다.’ → 나는 **그가 범인이라는** 확신이 없다.

a는 안긴문장에 두 문장의 공통 성분인 ‘그녀’가 생략되어 있는 반면, b는 안긴문장에 생략된 성분이 없다. 따라서 a는 관계 관형절, b는 동격 관형절이라 판단할 수 있다.

- ① **향기가 좋은** 꽃이 가득하다.
- ② **내가 읽을**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.
- ③ **내가 태어난**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.
- ④ **내가 공부한** 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.
- ⑤ **우리가 돌아온**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.

19. <보기>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.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보기

- ㄱ. 담장은 **이마에 흐르는** 땀을 씻었다.
 ㄴ. **그가 착한 사람임을**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.
 ㄷ. 그 사람은 **아는 것도 없이** 잘난 척을 해.

- ① <보기> 문장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문장입니다.
 ② 그런데 ㄱ, ㄴ,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, 목적어,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습니다.
 ③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, 생략된 주어는 '담장'입니다.
 ④ ㄴ에서는 밑줄 친 부분뿐 아니라 '그가 착한'과 '그가 착한 사람임을 모르는'도 안긴문장입니다.
 ⑤ 이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.

20. <보기>를 이용하여 국어 문장 구조에 관한 수업을 진행하였다. 발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?

<보기>

- ㄱ. 소년이 **나무를 기어 오르는** 벌레를 잡았다.
 ㄴ. **그가 훌륭한 요리사임을** 아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.
 ㄷ. 그 사람은 **자기 일도 못하면서** 남의 일을 도와주겠다고 해.

- ① <보기>의 밑줄 친 부분은 모두 다른 문장 속에 안긴 문장이다.
 ② ㄱ의 밑줄 친 부분에는 주어가 나타나 있지 않은데, 생략된 주어는 '벌레'이다.
 ③ ㄴ을 더 쪼개면 '그가 훌륭하다'와 '그가 요리사이다'라는 두 문장이 합쳐진 서술절이다.
 ④ ㄱ, ㄴ, ㄷ에서 밑줄 친 부분은 각각 관형어, 목적어, 부사어 구실을 한다.
 ⑤ ㄱ, ㄴ, ㄷ처럼 우리말은 문장 속에 문장을 안은 형태로 복잡한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.

- 1) ② [해] ② ‘갈등’은 <보기>에 해당되지 않으며, 제26항 ‘한자어에서 ‘ㄹ’받침 뒤에 연결되는 ‘ㄷ, ㅅ, ㅈ’은 된소리로 발음한다.’는 조항에 따라 [갈똥]으로 발음한다. [오] ① ‘똥개’는 제23항에 따라 [똥개]로 발음하고, ③ ‘낫살다’는 제23항에 따라 [낫살다]로 발음하며, ④ ‘머금다’는 제24항에 해당되므로 [머금따]로 발음한다. ⑤ ‘남기다’는 제24항 ‘다만, 피동, 사동의 접미사 ‘-기-’는 된소리로 발음하지 않는다.’는 조항에 따라 [남기다]로 발음한다.
- 2) ② [해] ②의 ‘밤길’이 [밤꺨]로 발음되는 현상은 합성어에서 된소리가 덧나는 사잇소리 현상이므로 ㉠의 사례에 해당하지 않는다.
- 3) ⑤ [해] 탐구 단계에 제시된 내용을 살펴보면, ‘ㄴ’이 ‘ㄷ’ 앞에서 된소리로 발음되기 위에서는 ‘ㄴ’이 어간 받침에 해당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. ‘신다’에서 ‘ㄴ’은 어간 ‘신-’의 받침에 해당하므로 그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‘ㄷ’이 된소리로 발음된다. 그러나 ‘난다’에서 ‘ㄴ’은 어간 ‘날-’의 받침에 해당하지 않고 현재 시제를 나타내는 선어말 어미에 해당하므로, 그 뒤에 오는 어미의 첫소리 ‘ㄷ’이 된소리로 발음되지 않는 것이다.
- 4) ⑤ [해] 제25항은 용언 어간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 ‘ㄱ, ㄷ, ㅅ, ㅈ’에 관한 것으로 ⑤의 ‘여덟과’와는 관계가 없다. ‘여덟과’는 명사가 조사와 결합한 경우로 [여덟과]로 발음해야 한다. [오] ④ ‘신기다’는 ‘신다’에 사동접미사 ‘-기-’가 붙은 것으로 표준어 규정 제24항의 ‘다만’ 조항에 해당한다. 따라서 ‘신기다’는 [신기다]로 발음해야 한다.
- 5) ⑤ [해] ‘없지만’을 [언찌만]으로 발음하는 것은 어간 받침 ‘ㅈ’ 뒤에 결합되는 어미의 첫소리인 ‘ㅈ’을 된소리 [ㅈ]으로 발음하는 것이므로 ㉠에 해당한다. 한편, ‘얕을수록’은 어간 ‘얕-’과 어미 ‘-을수록’으로 분석되는데, 이것을 [안출쑤록]으로 발음하는 것은 ‘-(으)르’로 시작되는 어미인 ‘-(으)르수록’의 ‘-(으)르’ 뒤에 연결되는 ‘ㅅ’을 된소리 [ㅈ]으로 발음한 것이므로 ㉡에 해당한다.
- 6) ③ [해] ㉠의 ‘뺨고’는 음절 끝소리 ‘ㄹ’에서 ‘ㄹ’이 탈락한 후, 뒷말 첫소리 ‘ㄱ’이 ‘ㄹ’과 만나 된소리로 바뀌어 [뺨:꼬]로 발음된다. [오] ㉡의 ‘좋아서’는 끝소리 ‘ㅎ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만나 탈락하여 [조아서]로 발음된다. ㉠은 축약어, ㉡은 구개음화가, ㉢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된소리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.
- 7) ⑤ [해] <보기>는 ‘ㅎ 탈락’ 현상을 설명하고 있다. ‘좋아요’를 [조아요]라고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‘ㅎ’이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와 결합하여 탈락한 것으로 이에 해당한다. [오] ① ‘하얗다’를 [하야타]로 읽는 것은 ‘ㅎ’과 ‘ㄷ’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. ② ‘좁히다’를 [조피다]로 발음하는 것은 ‘ㅎ’과 ‘ㅍ’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. ③ ‘놓는다’를 [논는다]로 발음하는 것은 음절의 끝소리 규칙과 비음화에 의한 것이다. ④ ‘그렇죠’를 [그러쵸]로 발음하는 것은 ‘ㅎ’과 ‘ㅈ’의 축약에 의한 것이다.
- 8) ② [해] ㉢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진 음절이므로 [ㄷ]㉠, ㉡는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‘ㄴ’이므로 [ㄷ]㉢로 발음한다. ㉣는 조사이므로 [ㄷ]㉤로 발음함도 허용한다. ㉥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.
- 9) ⑤ [해] <보기>는 단모음이 이중모음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것과 음운의 앞뒤에 놓인 환경에 따라 발음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으며 이 조건을 선택지에 정확히 적용하여 풀 수 있는가를 평가하는 문제이다. <보기>에 음절 ‘ㄴ’은 항상 [ㄴ]로 발음되, 단어의 첫 음절 이외의 ‘의’는 [의]로, 조사 ‘의’는 [의]로 발음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. 그러므로 ‘충의의’의 첫 번째 ‘의’는

- [의]로 두 번째 조사 ‘의’는 [에]로 발음할 수 있다. 그러므로 ‘충의의’는 [충의에]로 발음할 수 있다.
- 10) ㉠ [표준발음법을 이해한다.] <보기 1>의 표준 발음법 ‘제5항 다만 3’에 따라, ‘희망’의 ‘희’는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이므로 ‘ㄴ’은 [ㄴ]로 발음한다. 따라서 [희망이] 표준 발음이다.
- 11) ④ [해] 일반적으로 구개음화는 ‘ㄴ’모음 앞에서 일어나지만 자료 ㉡처럼 실질 형태소끼리 결합할 때에는 일어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. ① ㉢는 ‘ㄴ’모음 앞에서도 구개음화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. 이것은 모음 ‘ㄴ’이 ‘ㄴ+ㄴ’의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. ② ㉣에서 모음 ‘ㄴ’ 앞에 ‘ㄷ, ㅌ’이 있지만 구개음화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데, ㉣의 자료는 모두 한 형태소로 되어 있고, 따라서 한 형태소 안에서는 구개음화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. ③ ㉤에서 보듯 두 번째 음절 이후에서도 구개음화가 나타나고 있다. ⑤ ㉥에서 ‘물히다’는 ‘ㄴ’모음 앞에 ‘ㅎ’이 있어 구개음화의 환경이 아니지만, ‘ㄷ’과 ‘ㅎ’이 축약되어 ‘ㅌ’이 되면 ‘ㄴ’모음 앞에 ‘ㅌ’이 놓이게 되어 구개음화가 일어난다.
- 12) ① [해] ‘파다’를 기본형으로 하는 동사의 어간은 ‘파’로 ‘ㅌ’로 끝난 어간인데, 여기에 ‘-이-’가 와서 줄 적에는 준대로 ‘ㅌ’라 적는 다 했으므로 ㉠은 ‘페다’가 적절하다. 또한 이것은 뒤에 오는 체언을 꾸며 주는 활용 형태를 만드는 관형사형 전성어미가 쓰이는 경우인 ‘파이’+ ‘ㄴ’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되어 ‘파이’는 ‘페’로 줄어 ㉡는 ‘팬’이 된다. 그리고 ‘파이’가 줄어든 형태인 ‘페’에 ‘-었-’이 어울려 준 형태가 준 대로 적은 것이 ‘팸’이므로 ㉢는 ‘페었다’가 줄기 전의 본말 형태이다. ② ‘페었다’는 ‘파이’의 준 말인 ‘페’에 ‘-이-’를 중복해서 사용한 후 ‘-었-’과 어울려 사용한 것을 줄여 쓴 것(‘파+이+이+었+다’)이므로 적절하지 못한 표기이다. ※ 참고로 ‘하다’ 동사의 경우에는 어간 ‘하-’에 과거형 선어말 어미 ‘-었-’이 사용 될 경우에는 ‘하었다’가 아니라 ‘하였다’로 쓰이는 ‘여 불규칙 현상’이 나타난다.
- 13) ㉠ [한글 맞춤법 규정 파악] 흔히 잘못 쓰기 쉬운 ‘오’, ‘요’의 표기에 대한 한글 맞춤법 규정을 개별 사례에 적용하여 이해할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문항이다. ㉡의 ‘아니요’는 ‘아니오’로 표기하여야 하는데, 종결형에서 사용되는 어미 ‘-오’는 ‘요’로 소리가 나더라도 ‘오’로 적어야 하기 때문이다. 이를 설명한 규정 ㉣를 ㉡의 올바른 표기 과정에 적용되는 원칙으로 짚지는 ㉠이 정답이다.
- 14) ㉠ [한글 맞춤법 규정 적용] ‘ㄴ’ 뒤에 ‘-어’가 붙은 형태는 ‘내’로 줄어질 수 있으므로 ‘짜러라’는 ‘쩌라’로 줄어질 수 있고 표기도 그렇게 하여야 한다. 그러므로 ‘짜러’는 틀린 표기이다.
- 15) ㉠ [해] 이 문항은 명사절이 문장 속에서 다양한 문장 성분으로 쓰이는 현상과 각각의 용례를 제시한 후 그에 대해 탐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. 정답은 ㉣로, ㉡에서 명사절 ‘겨울이 오기’에 조사가 결합하지 않은 것은 맞지만, 명사절이 명사 ‘전(前)’을 수식하기 때문에 부사어가 아닌 관형어 역할을 한다.
- 16) ㉠ [관형어에 대한 이해] ㄹ에서 관형격 조사가 생략될 경우에 문장이 여러 가지 의미를 갖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. ㉡ ① ㄴ에서 ‘새’는 관형어이고 ‘구두’는 ‘새’가 수식하는 체언인데, 이 경우 관형어만으로는 문장 속의 한 성분으로 사용할 수 없다. ② ‘느낀 대로 말해라.’에서 ‘느낀’이 관형어이고 ‘대로’는 의존 명사인데, ‘*대로 말해라.’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관형어 ‘느낀’을 생략하면 어색한 문장이 된다. ③ ‘지나가’는 동사 ‘지나가다’의 활용형으로서 관형어로 쓰인 것이다. ⑤ ‘그가 결석한’은 관형절에 해당한다. 관형절 역시 관형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.

- 17) ㉠ ㉡ ㉢ ㉣의 문장에서 앞 절과 뒤 절의 순서를 바꾸면 ‘그녀는 강하지만 그는 약하다.’가 된다. 이로 보아 앞 절과 뒤 절의 위치를 바꾸어도 대조의 의미가 사라지지 않음을 알 수 있다. ㉠ ㉡은 ‘그가 우리에게 돌아오기’라는 명사절을 안은 문장이다. 문장에서 ‘그가 우리에게 돌아오기’는 목적어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. ㉢ ㉣은 ‘사람은’이라는 주어와 ‘존재한다’라는 서술어로 구성되어 있는 문장으로, 주어와 서술어의 관계가 한 번 나타나 있다. ㉠ ㉡은 ‘비가 오지 않다.’와 ‘모를 내지 못하다.’가 종속적 연결어미 ‘-아’로 연결되어 있는 문장으로, 종속적으로 이어진 문장에 해당한다. ㉢ ‘코가 길다’는 주어와 서술어로 구성된 서술절에 해당한다. 즉, 절 전체가 서술어의 기능을 하고 있다.
- 18) ㉠ ㉡ [관형사절의 종류 파악] ‘우리가 돌아온 사실을 그는 모르고 있었다.’는 ‘우리가 돌아왔다.’라는 문장이 ‘그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.’라는 문장 속에 안겨 있는 형태이다. 안긴문장의 수식을 받는 ‘사실’이라는 체언이 안긴문장의 한 성분이 아니라, 안긴문장과 의미상 동격 관계에 있으므로 ㉡는 동격 관형절이라 할 수 있다. ㉠ ㉡ ‘향기가 좋은 꽃이 가득하다.’는 ‘꽃이 향기가 좋다.’라는 문장이 ‘꽃이 가득하다.’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. 따라서 ‘꽃’은 안긴문장의 주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㉠은 관계 관형절이다. ㉢ ‘내가 책을 책이 책장에 가득하다.’는 ‘내가 책을 읽을 것이다.’라는 문장이 ‘책이 책장에 가득하다.’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. 따라서 ‘책’은 안긴문장의 목적어이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㉢는 관계 관형절이다. ㉣ ‘내가 태어난 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.’는 ‘내가 그해에 태어났다.’라는 문장이 ‘그해에 그 일이 벌어졌다.’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. 따라서 ‘그해’는 안긴문장의 부사어이면서 안은문장의 부사어이기도 하므로 ㉣은 관계 관형절이다. ㉤ ‘내가 공부한 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.’는 ‘내가 학교에서 공부했다.’라는 문장이 ‘학교는 저 언덕 끝에 있다.’라는 문장에 안긴 형태이다. 따라서 ‘학교’는 안긴문장의 부사어이기도 하면서 안은문장의 주어이기도 하므로 ㉤는 관계 관형절이다.
- 19) ㉠ ㉡ [문장 구조 이해하기] ㉠에서 밑줄 친 부분은 명사 ‘땀’을 수식하는 관형절로 안긴문장이다. 이때 밑줄 친 문장의 서술어가 ‘흐르다’이니 문맥상 이에 대응하는 생략된 주어는 ‘땀’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. ‘답정’은 ㉠에서 문장 전체의 주어로, 서술어인 ‘짓었다’와 호응한다. ㉢ ㉣ <보기>의 밑줄 친 부분들(㉠ : 관형절, ㉡ : 명사절, ㉢ : 부사절)은 전체 문장 속에 절로 들어가 하나의 문장 성분처럼 쓰이는 안긴문장들이다. ㉡ ㉢의 밑줄 친 부분은 체언(명사) ‘땀’을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. ㉡의 밑줄 친 부분은 끝에 목적격 조사 ‘을’과 결합하여 목적어 구실을 하고 있다. ㉢에서는 밑줄 친 부분이 ‘잘난 척을 해’라는 서술 어구를 꾸미는 부사어의 구실을 하고 있다. ㉣ ㉤에서 ‘[그가 + 착하다]’는 관형사형 어미 ‘-는’과 결합(‘착한’)하여 뒤에 나오는 명사 ‘사람’을 꾸며 주는 ‘관형절로 안긴문장’이다. 또한, ‘[(사람은) + 그가 착한 사람임을 + 모르(다)]’ 역시 관형사형 어미 ‘-는’과 결합(‘모르는’)하여 뒤에 나오는 명사 ‘사람’을 꾸며 주는 ‘관형절로 안긴문장’이다. 즉, 두 부분 모두 ‘관형절로 안긴문장’인 것이다.
- 20) ㉠ ㉡ ㉢에서 ‘그가 훌륭한 요리사이다’는 하나의 문장이다. / ㉠안긴문장은 안은 문장의 한 성분이 되는 문장으로 밑줄 친 부분은 모두 안긴 문장이다. ㉡ ㉢에서는 명사(별례)를 수식하고 있으므로 관형어 구실을, ㉣에서는 전체 문장의 목적어 구실을, ㉤에서는 동사(도와 주다)를 수식하는 부사어 구실을 하고 있다.